



나날이 어린이 신문

‘가난한 이들의 친구’ 프란치스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린 아이를 안아주고 있어요. 출처:교황청

“나는 엄마께서 낳아주셨고, 엄마는 엄마의 엄마께서 낳아주셨고, 엄마의 엄마는 엄마의 엄마의 엄마께서 낳아주셨는데, 엄마의 엄마의 엄마의 엄마의 엄마는 대체 누구지?”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든 적 있나요? 사람은 어떻게 생겨나게 됐을까, 이 세상은 누가 만든 것일까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은 무려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했던 질문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그게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세운 단군 할아버지 이야기 알고 있죠? 하늘나라에 환인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아들인 환웅이 땅으로 내려와, 쑥과 마늘만 먹고 사람이 된 곰(웅녀)과 결혼해 낳은 아들이 단군 할아버지예요. 또 그리스·로마 신화를 보면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불을 선물해줬다고 하죠. 그리고 천주교와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라는 신이 세상과 사람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에도 하느님을 믿고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을 교황이라고 해요. 천주교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의 나이로 4월 21일 돌아가셨어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살아 생전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 역시 가난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죠. 일부러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고, 천주교에서 주는 비싼 자동차도 마다하고 버스, 지하철을 타고 다녔어요. 교황이 된 뒤에도 12년 동안 월급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가방, 신발이 낡도록 오래 신고 다녔어요. 교황이 돌아가신 뒤에 남긴 재산은 고작 14만 원이 전부였대요.

천주교에서는 착한 사람이 죽으면 하느님이 있는 천국으로 간다고 해요. 프란치스코 교황도 천국으로 가셨겠죠?

* 신문기사를 소리내어 읽어 보세요.

문해력 쑥 

오늘의 단어

생전 살아있는 동안

재산 개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

돌아가셨다 나이가 많은 윗사람의 죽음을 표현하는 말

독해력 쑥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사고력 쑥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떤 분이셨나요? 우리가 배울점을 적어 보세요.